

# “강하고 활기찬 KIST를 만들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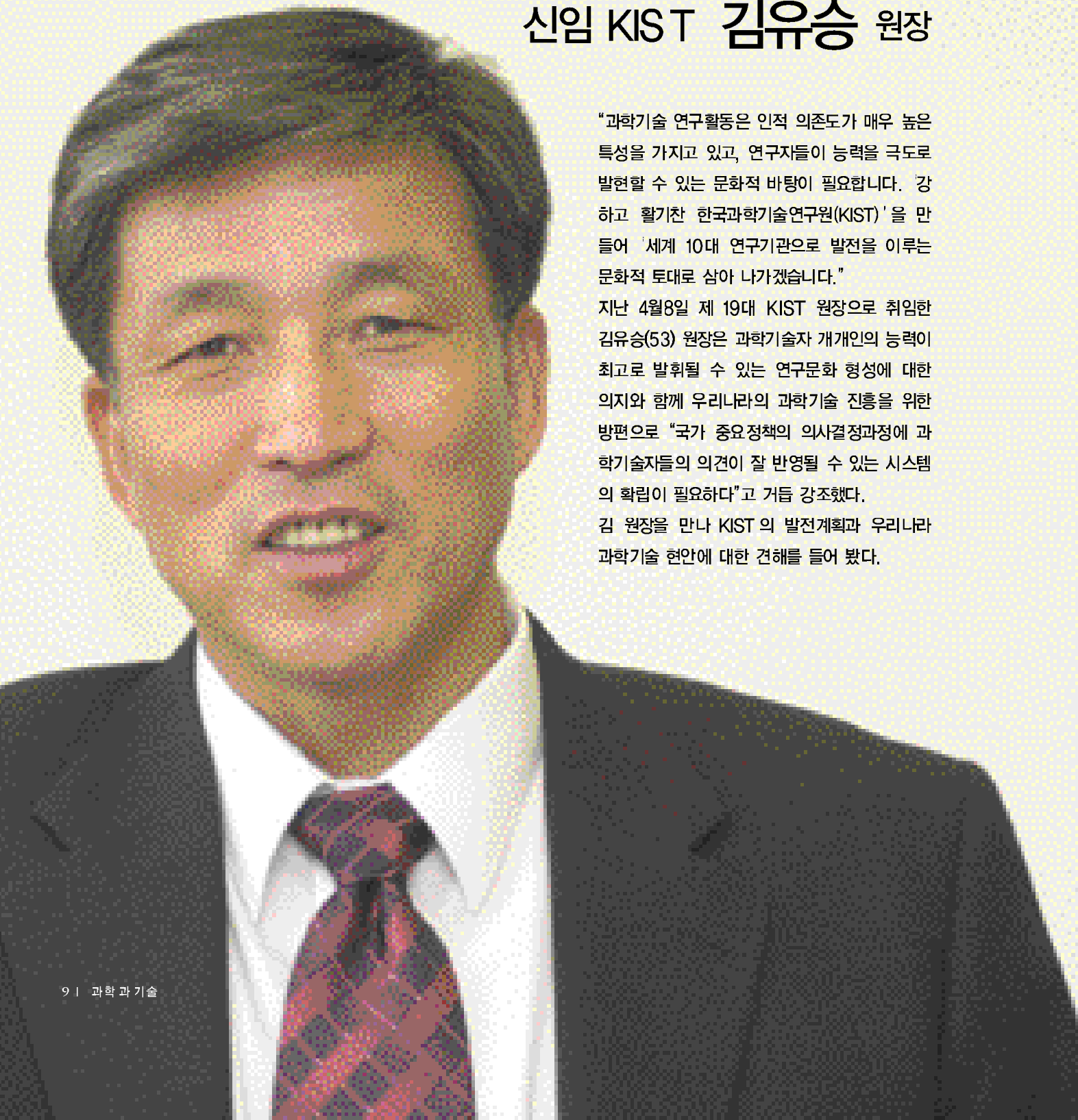
과학기술자들의 국가 정책 참여 폭 넓혀야

## 신임 KIST 김유승 원장

“과학기술 연구활동은 인적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연구자들이 능력을 극도로 발휘할 수 있는 문화적 바탕이 필요합니다. 강하고 활기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만들어 '세계 10대 연구기관으로 발전을 이루는 문화적 토대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8일 제 19대 KIST 원장으로 취임한 김유승(53) 원장은 과학기술자 개개인의 능력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는 연구문화 형성에 대한 의지와 함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방편으로 “국가 중요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장을 만나 KIST의 발전계획과 우리나라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 봤다.



**KIST 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포부를 밝혀 주십시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의 중요성, 과학기술자들에게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고, 정부도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국과학기술의 중추기관인 KIST에 거는 기대가 남다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생각하고 KIST가 '제2의 과학기술입국' 실현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KIST의 연혁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KIST가 설립된 1966년은 우리나라가 빈곤의 악순환에서 탈피하여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국가적 열망이 높아가는 시기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공계 연구소의 설립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이 KIST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KIST의 설립은 한·미 양국대통령(박정희 대통령, 존슨 대통령)의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양국간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늘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습니다.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장기 기술개발 정책 수립, 한국 고유의 연구문화 형성 및 확산, 우수 연구인력의 산실로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진흥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지난 37년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의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 여러가지 비판도 나오는 데 출연연구소의 자리매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부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출연연구기관들이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과학기술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온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연구개발

수행체제가 다원화되고 국가사회의 과학기술자에 대한 기대에 비추어 보다 명확한 역할의 분담과 확고한 비전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1세기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위해서도 국가적 차원의 기초 및 미래원천 기술개발 등에서 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는 시점이며, 출연연구기관 역시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국가사회의 이해와 지원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해 한번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했었는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 많습니다.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공계 출연연구기관의 3개 연구회 체제 운영에 대한 질문 같은데, 지배구조란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또 현재의 연구회 체제가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만큼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발전시켜 우리고유 연구문화의 일부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율성과 독립성의 문제도 제도의 틀 안에서 상호역할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운영의 효율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 INTERVIEW

문제라 여기며, 제도나 법률이 보장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합대학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부 대학에서는 연구소에서 무슨 대학이냐며 출연연구기관의 연합대학원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2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 부설형태로 설립하는 ‘(가칭)과학기술연합 대학원 대학(연합 대학원)’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현재 25명으로 구성된 설립추진위원회가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대학원 대학 운영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별도의 투자 없이도 출연기관들이 그동안 쌓아온 연구 역량과 시설, 장비, 인력 등을 활용하므로써 기존 이공계 대학과는 차별화된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력양성 경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경로를 통해 다양한 특장능력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이끄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유럽국가들의 경우 연구소가 대학과 협력하여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국가 연구개발

문화에 성공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학원 대학은 국가자원의 일부인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우수한 인재를 보다 효과적으로 양성하지는 노력으로 이해하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공계 기피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방은 없습니까.**

청소년층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대안들이 논의되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공계 기피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나아가 과학기술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풀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과학기술자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 과학기술자들을 우대하고 과학기술적 사고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문화적 토양을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나갈 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정부가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이란 것을 내걸었는데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져, 과학기술자들로서도 기대가 높습니다.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은 과학기술이 사회 구성구석까지 영향을 끼치며 모든 부문의 발전과 진보를 이끈다는 인식에서 출발된다 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 제고, 경제적 풍요 달성, 삶의 질 향상 등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들이 모두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대치를 현실적 정책으로 잘 가다듬고, 그 과정에서 일선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과학기술계로서도 지금의 기회를 살려 나가야 합니다. 새 정부의 의지,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정부의 과학기술자 사기진작책 등 여건들을 슬기롭게 결집하여 과학기술 중심사회로 가는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자들이 뜻과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해서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 최고책임자의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인식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끄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진흥방안들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과학기술자들이 힘을 합쳐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과학기술 진흥의 중요한 방편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자들의 정책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선진국일수록 국가정책의 중심에 과학기술자들의 참여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와 국민들도 과학기술자들에게 신뢰와 격려로 힘을 실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신뢰와 격려는 어떤 정책보다도 과학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가 주목할 일류 정부연구소가 하나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KIST의 장기 비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KIST는 '세계 10대 연구기관으로 발전'을 목표로 여러 발전전략과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KIST의 장점을 잘 살려 미래 원천 및 첨단융합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나노재료·소자 등 5대 중점 연구영역을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세워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활동은 인적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연구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문화적 바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강하고 활기찬 KISTI'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이를 KISTI의 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세계 10대 연구기관으로 발전'의 목표를 이루는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이러한 내적 노력과 병행하여 연구기관간 획일적 경쟁보다는 상호호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연구수행의 대외 개방성을 높이는 데에도 KIST가 그 구심체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며,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연구개발 역량을 효과

적으로 결집하고 강화하는 바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을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 현지의 연구소 운영, 외국 연구소의 국내 유치 등을 추진중이며 KISTI가 추진중인 이러한 선진국들과의 연구인프라 교류는 선진국의 앞선 연구문화를 습득하는 기회가 되고 KISTI가 세계적인 연구소로 발전하는 외적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임 원장이 과기부 장관이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이 장관이 되면 무슨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출연연구기관은 어느 연구주체 보다 국가적 필요성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런 만큼 국가적 관점의 연구개발에 대한 총체적이고 균형된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또 중추적 연구기관 운영경험 등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장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호균 과학기술부 장관님은 KISTI에 계실 때부터 남다른 비전 제시 능력과 추진력을 가지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한 단계 앞선 도약의 기틀을 이루어 나가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리 | 정진익 과학기술미디어사업단장**

김 원장은 경기도, 서울대를 거쳐 미국 몬타나주립대에서 화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1977년부터 KIST에서 연구활동을 시작, 책임연구원 연구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0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KIST 부원장을 지냈다. 또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연구기관의 만행으로서 과학강국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다.